

‘굿바이’ 마스크...설레는 유통가

소비자심리지수 두 달 연속 상승...광주신세계 화장품 매출 25% 증가 광주 카드 매출 증가율 ‘한 자릿수’ 전국 유일...사업체 매출 회복 더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소비 회복을 향한 업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각종 소비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이지만,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 마스크 완화 조치가 실물 경기 회복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달(1~29일) 점포 전체 매출은 1년 전보다 13% 늘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따라 다시 특수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는 화장품 매출은 같은 기간 25% 증가했다.

이날부터 매장 안에서 본보기 상품 사용이 자유로워진 색조 화장품 매출은 11% 늘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같은 기간 색조 화장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5% 증가했다.

광주·전남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두 달 연속 상승 추세다.

이 가운데 소비자충전망CSI(108)는 전월보다

2포인트 오르며 방역 완화로 인한 소비심리 상승을 기대했다.

통계청이 신한카드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추산한 지역민들의 이달 셋째 주(14~20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1월보다 광주 12.2%·전남 1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0.0% 늘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카드 사용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두 자릿수’ 증가했지만, 이 같은 가계 지출 흐름이 사업체 매출 회복세를 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광주지역 사업체들의 매출 회복세는 설 연휴를 앞둔 대목이었음에도 다소 더딘 양상을 보였다.

이달 셋째 주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카드 매출(개인+법인)은 3년 전보다 광주는 5.6%, 전남은 27.3% 증가했다.

광주 사업체 카드 매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19.6%)을 크게 밑돌지만 아니라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쳤다.

2020년 1월과 비교하면 경기 매출 증가율이 36.6%로 가장 높았고, 대구(33.5%), 전남(27.3%), 부산(26.4%), 충남(25.9%), 인천(20.4%), 경남(19.6%), 울산(18.7%), 대전(18.7%), 경북(17.3%), 제주(17.0%), 충북(16.4%), 세종(15.8%), 서울(14.4%), 전북(10.7%), 강원(10.3%), 광주(5.6%)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 사업체들 가운데 식료품·음료(주류·담배 포함)와 보건 부문 매출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각각 129.9%, 20.5% 증가했지만, 음식·음료 서비스 매출은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외 숙박(-18.2%), 의료·신발(-13.2%), 교육서비스(-14.1%) 등 매출은 3년 전보다 감소했다.

지역 유통업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따른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의 일상 회복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광주지역 백화점 관계자는 “매장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되도록 착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휴게 공간과 상담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식품관 조리직원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BTS 딸기’ 맛보세요 롯데마트 직원이 다른 딸기에 비해 당도가 최대 50% 높은 ‘두리향 딸기’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BTS 딸기’로 유명세를 탄 이 품종과 ‘킹스베리 딸기’ 등 고급 품종 물량을 지난해보다 50% 이상 확대했다. <롯데마트 제공>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광주상의, 전액 무료 진행

중소·중견기업 30개사 대상

광주상공회의소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표준화한 개념이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의 인재 채용, 근로자 교육 훈련과정 개발 등 기업의 핵심적 인재육성 체계 구축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올해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0개사를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상의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30개사를 선정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를 매칭 후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기업에서 이뤄지는 전체 직무를 NCS를 활용해

분석, 이를 바탕으로 채용, 인사, 교육, 평가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체계적인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지역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구인난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이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의 홈페이지(http://www.gjcc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광주상의 협력사업본부 전화(062-350-5893)로 문의하면 된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리 인상 여파에 은행 연체율 ‘꿈틀’

광주 0.35%·전남 0.14%

광주 26개월 연속 광역시 최고

대출 금리 인상 여파로 광주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오르며 27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3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은 광주 0.35%·전남 0.14%로 집계됐다.

광주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26%, 10월 0.31%, 1월 0.35% 등으로 2개월 연속 오르면서 지난 2020년 8월(0.35%)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 광주 연체율은 전국 평균(0.24%)을 웃돌면서

러 2020년 10월(0.32%)부터 26개월 연속 7대 광역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 11월 연체율은 전월(0.13%)보다 소폭 올랐다.

예금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광주 0.13%·전남 0.07%로, 전국 평균(0.14%)을 밑돌았다.

광주 중소기업들의 평균 연체율은 11월 기준 0.39%로, 전국 평균(0.34%)을 웃돌았다. 전남은 0.31%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

월과 올해 1월까지 약 1년 5개월 사이 모두 열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 0.50%였던 기준금리는 3.50%로 3.00%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지난해 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향후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 대출 중 부실 위험 규모가 올해 말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안정보고서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카카오 먹통’ 소상공인 피해 서류 접수 시작

다음달 27일까지 모든 채널 오픈 서류 검토 후 3월 내 지원금 지급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장애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30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 4주다.

서류 제출 대상은 우선 지난해 10월 19일~11월 6일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했던 소상공인이다.

이때 신고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다음달 13일부터 2주간 추가로 서류를 낼 수 있다.

카카오는 기존 접수자들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 접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으며,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유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카카오톡 채널 장애의 경우 서비스 이용화면을 캡처해 공식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보내면 된다.

이번 서류 접수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최대한 간편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카카오는 강조했다.

카카오는 서류 접수 방법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을 운영하는 한편 고객센터 웹페이지, 전화, 우편 등 모든 창구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담 인력 100여 명을 증원해 전담 고객센터를 설치했다.

카카오는 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학계가 참여한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수립한 원칙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 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 원을 지급한다. 50만 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지원금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3월 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음 달 중 2천여 건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무상 캐시 지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0.47 (-33.55)
↓ 코스닥	738.62 (-2.63)
↓ 금리(국고채 3년)	3.271 (-0.033)
↓ 환율(USD)	1227.40 (-3.9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